2019년 연구결과 소개 ②

인천시 노인의 가계구조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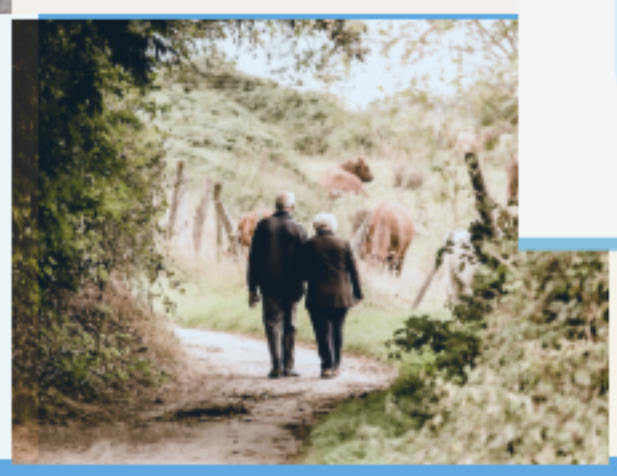
: 경제적 취약 노인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



(재)인천여성가족재단 ·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

인천시 베이비부머가
응답한 노년기 준비에서
가장 필요하지만
준비되어 있지 않은 영역
: 경제적 준비





경제적 준비

01 질문

노년기를 위하여 무엇을 대비하여야 하는가?

노년기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?

02 방법

현재 노인가구의 평균적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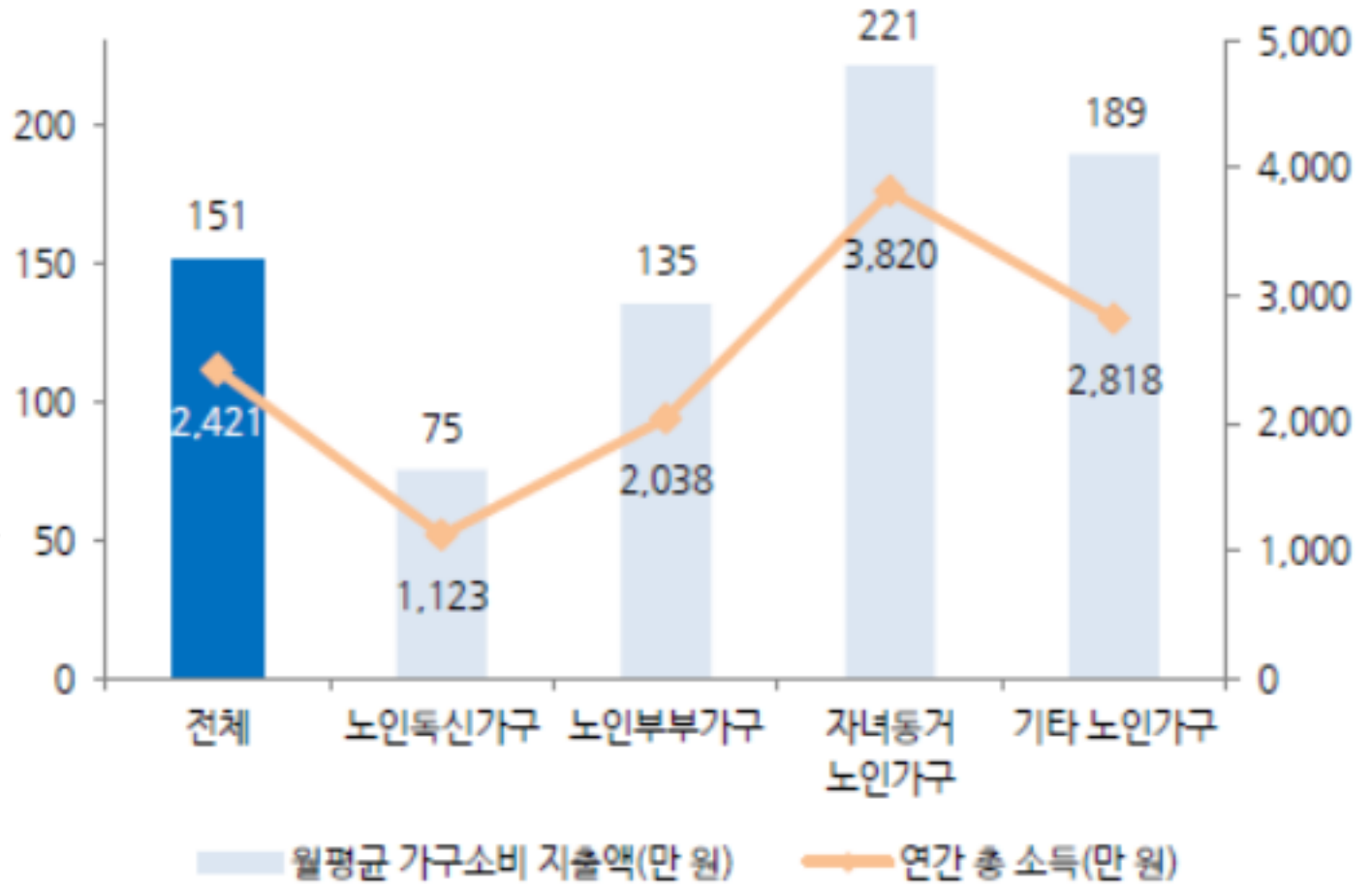
가계를 통해 추정

03 기대효과

현재 취약한 노인가구를 지원하고,

베이비부머의 경제적 준비를 돕고자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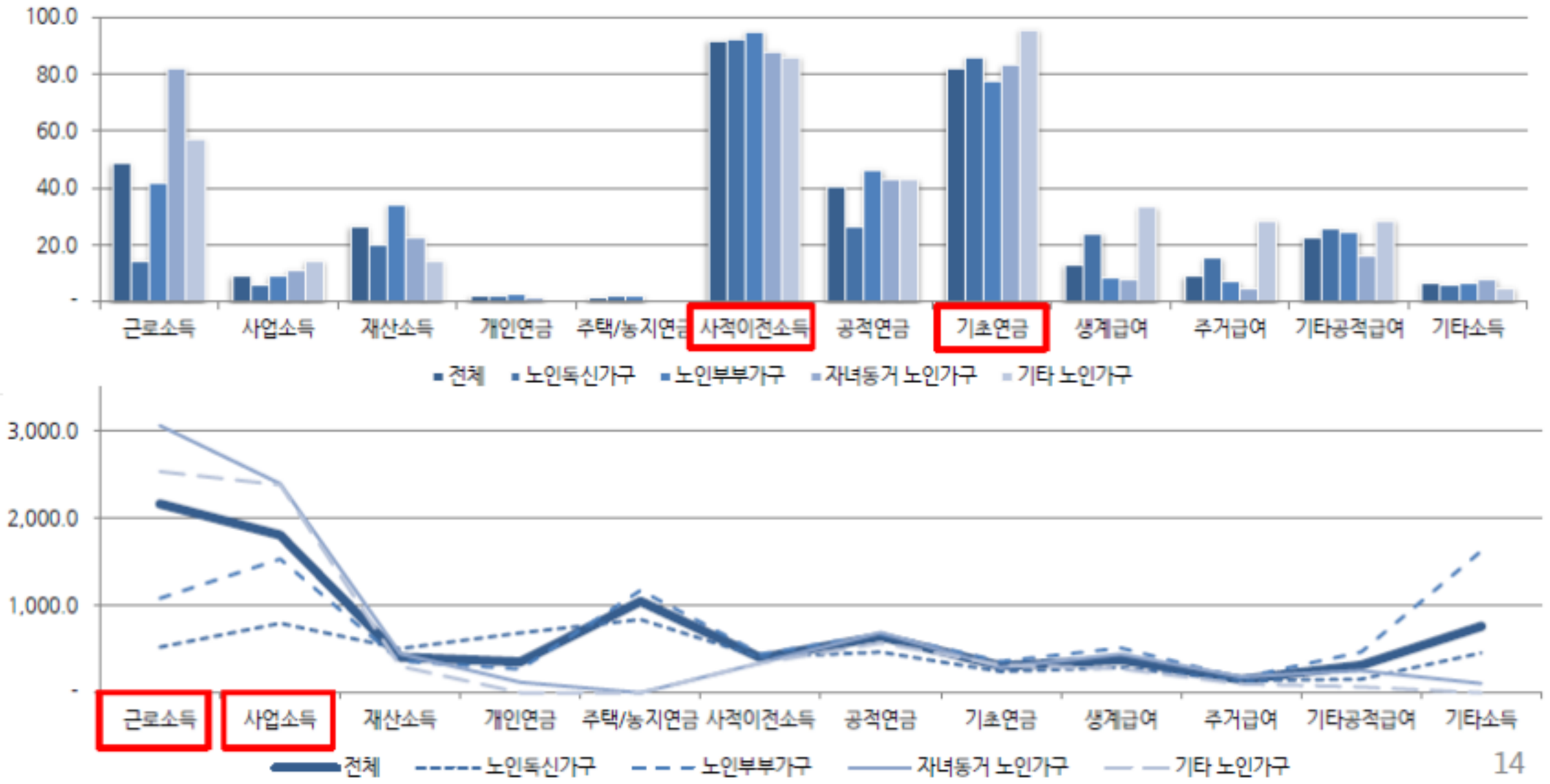




주: 월평균 가구소비지출액은 가계를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관련 비용만 포함한 금액임.
세금, 사회보험료, 이전지출 등의 비소비지출과 자산축적을 위한 지출 등은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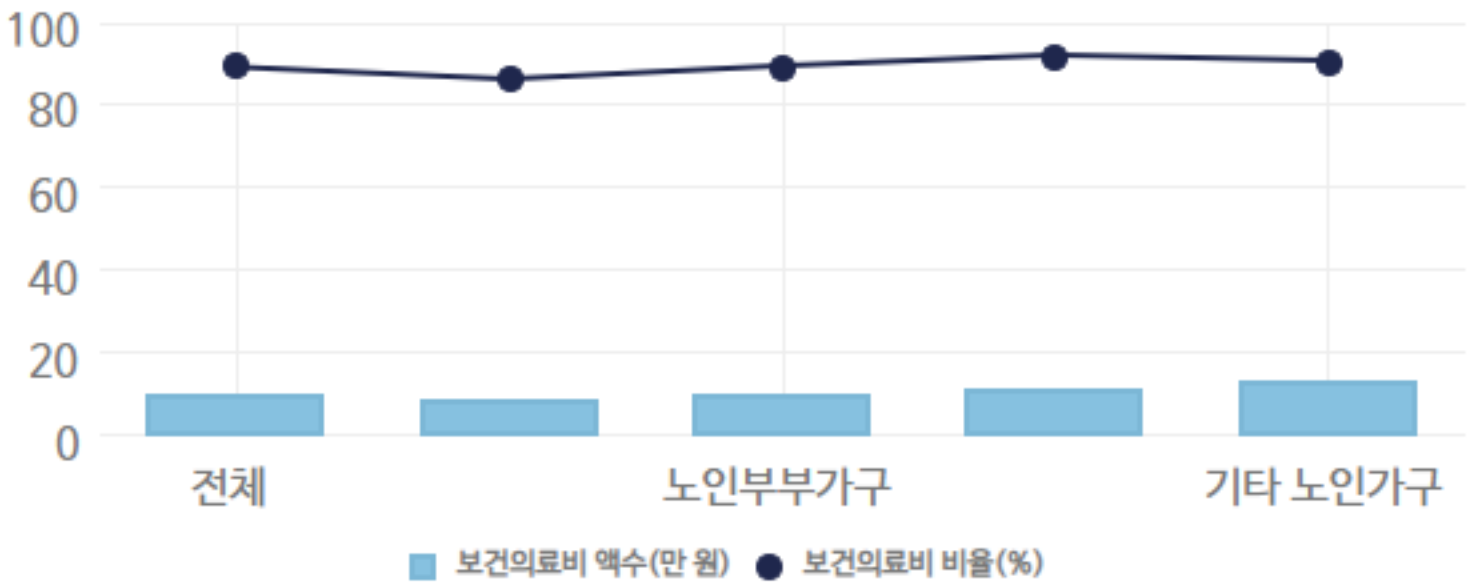
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 중 인천시 노인을 추출하여 보면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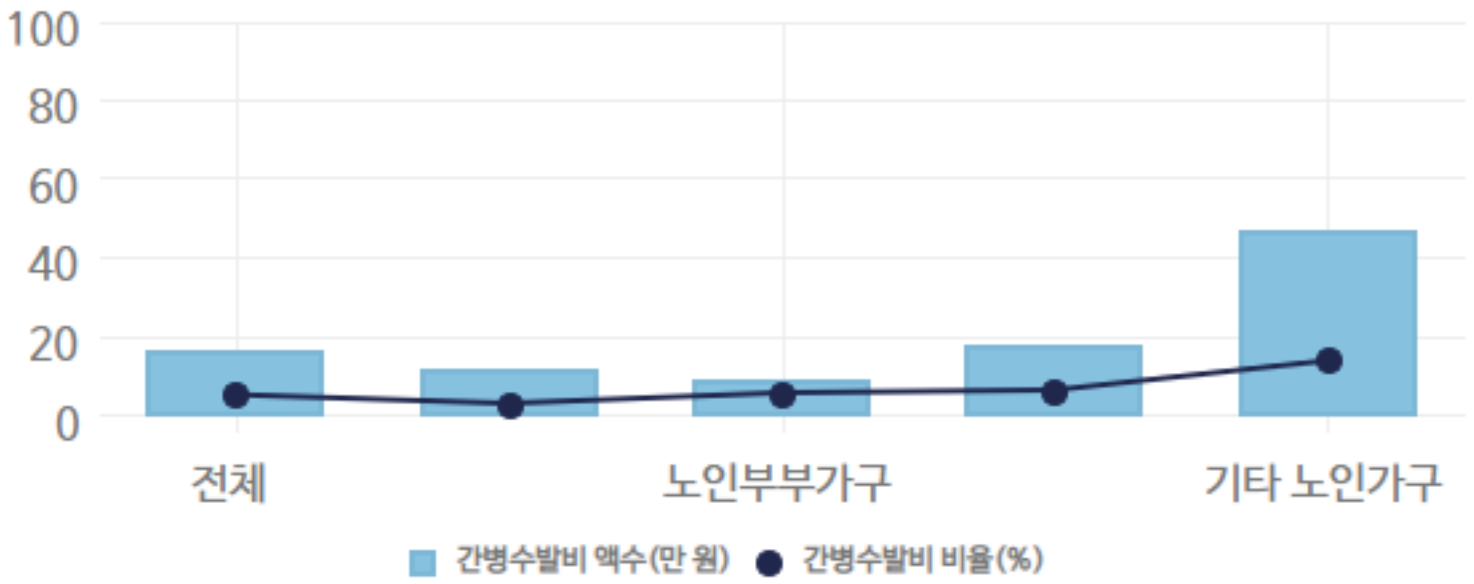
노인가구의 평균 연간 총 소득은 2,421만 원,
월 평균 가구소비 지출액은 141만 원,
동거가구원이 있을 때 연소득이 높고 지출액이 많습니다.



연 소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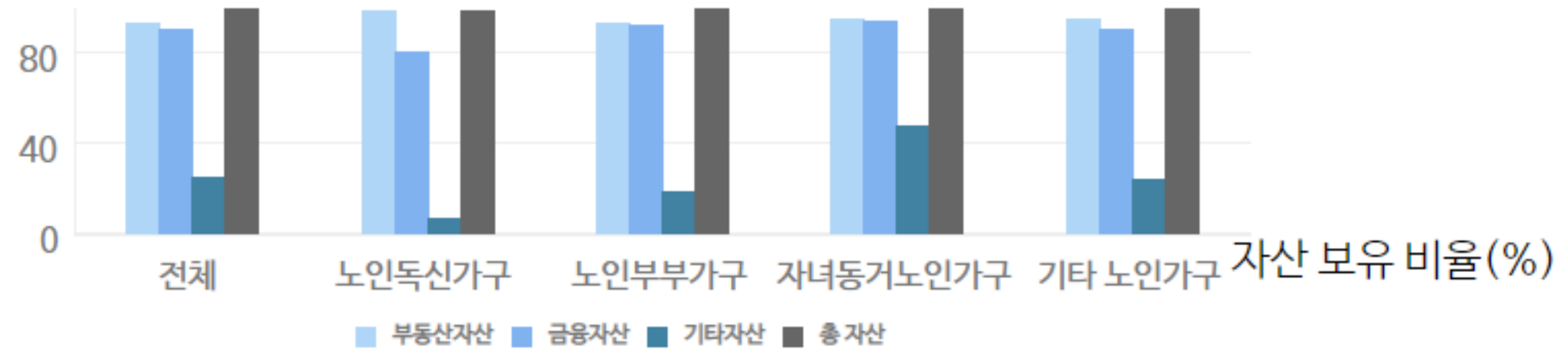
대부분의 노인가구는 사적이전소득 및 기초연금이 있고,
가장 높은 소득을 보인 항목은 근로소득이었습니다.
가구별로 금액차이가 큰 항목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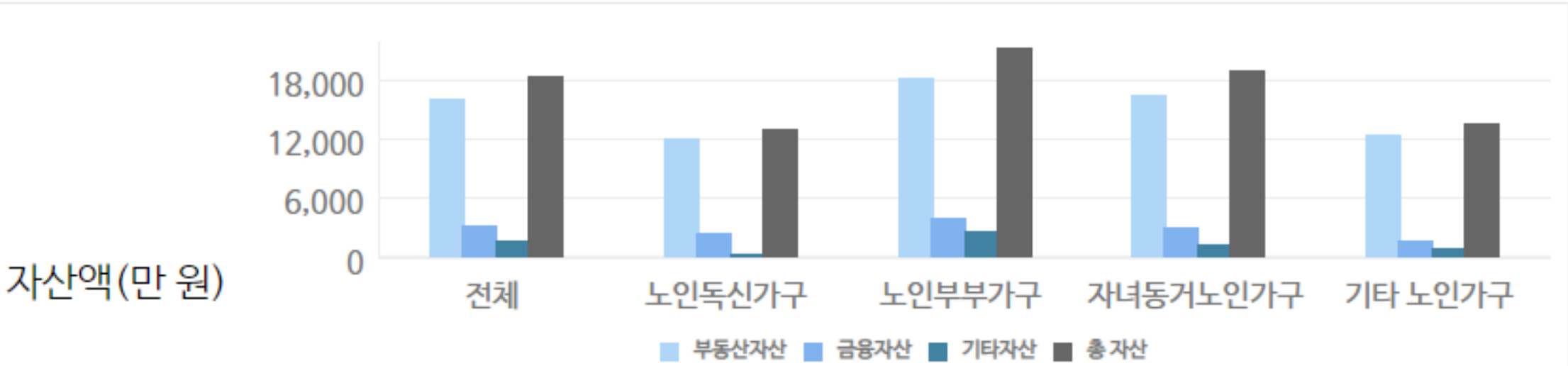




노인 개인을 위한 지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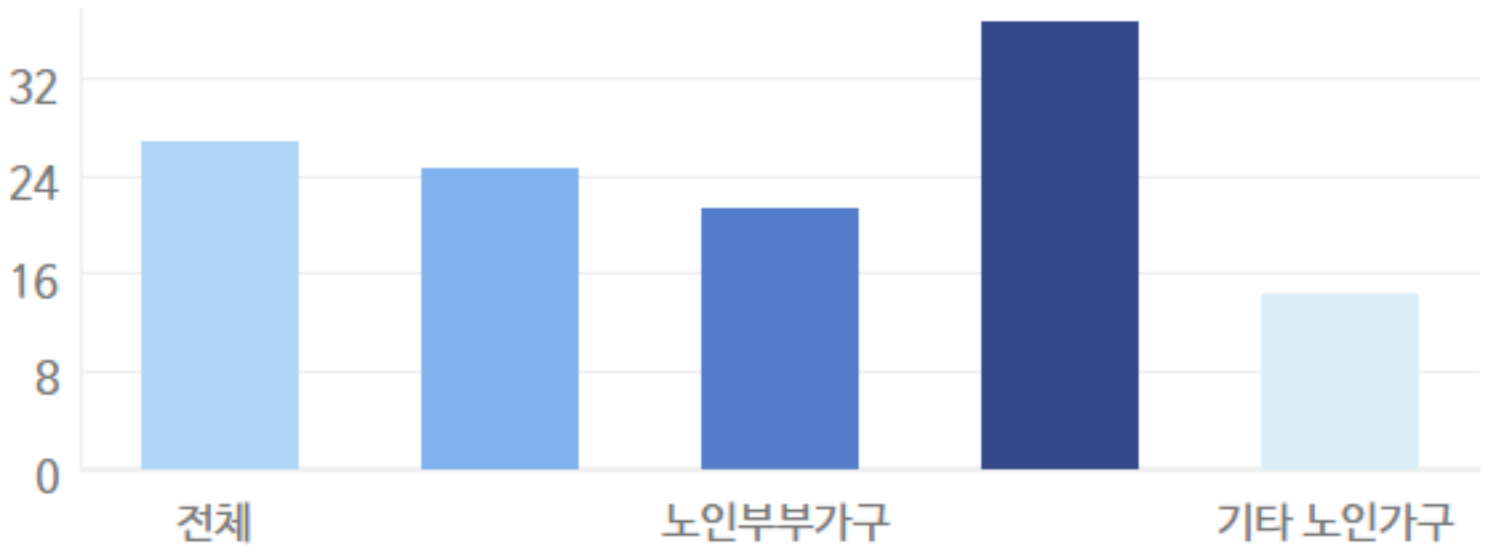
대부분 노인가구는 보건의료비를 지출하였고,
간병수발비는 지출하는 비율은 낮으나
지출액이 큰 항목으로 나타났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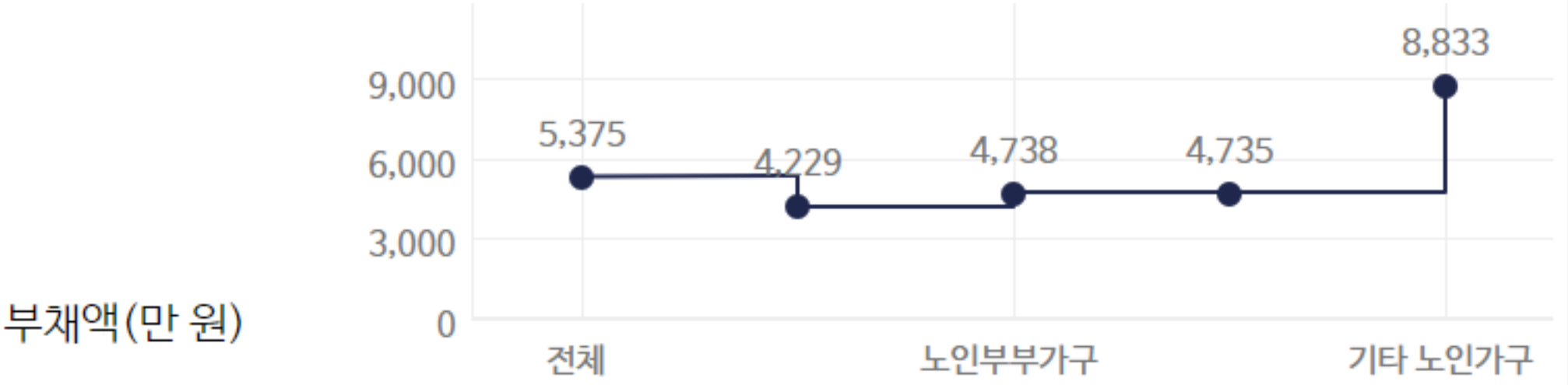


자산

대부분의 노인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,
가장 많이 보유한 자산은 부동산자산이었습니다.
총 자산액은 평균 18,429만 원이었으며,
노인부부가구의 자산이 가장 많았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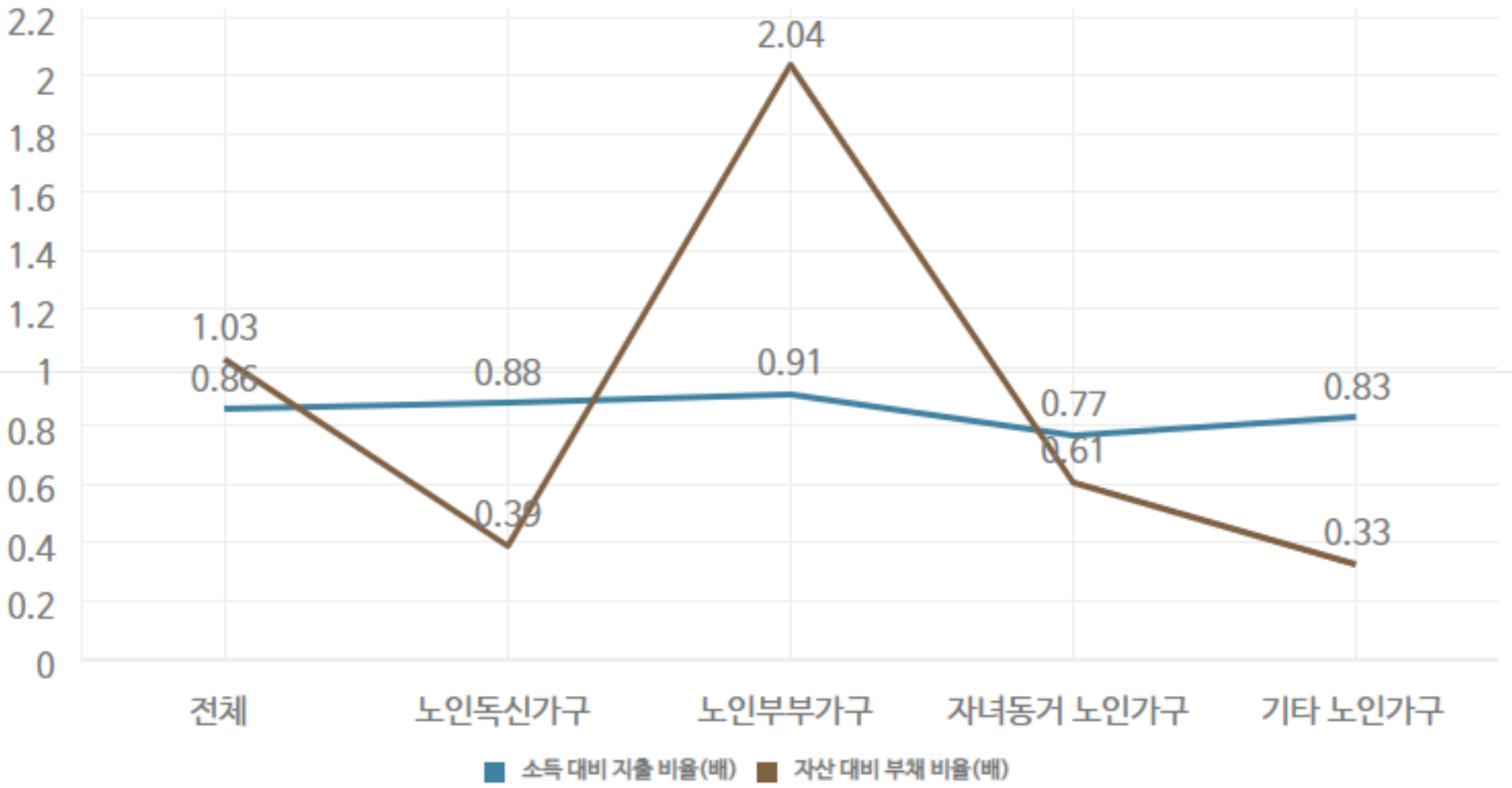
부채비율(%)



부채액(만 원)

부채

부채가 있는 비율은 26.9%였으며
평균 부채액은 5,375만 원이었습니다.
가구유형 중 기타 노인가구의 부채액이
8,833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.



가계의 지불능력

월 평균 가구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전환하여 보면, 월 소득 대비 월 평균 가구소비지출 비율은 0.86배로, 지출액보다 소득액이 더 많았습니다.

(※다만 본 지출은 소비지출액으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이 제외된 지출액)

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.03배로, 대부분의 가구유형에서 자산을 처분하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인부부가구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2.04배로 매우 높았습니다.

이와 같은 결과는?

경제활동인구(15-64세)와 함께 동거하지 않은 노인가구는 경제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줍니다.

☑ 노년기 가구소득 중 경제활동 참여 소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,
공공에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는 중요

☑ 다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은 공적연금으로,
노년기 경제활동 참여 의사가 없는 베이비부머는
노년기 소득원으로 연금 준비 필요

☑ 현재 취약한 노인가구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이며,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고려할 때 노인부부가구가 가장 취약

☑ 지역주민 인터뷰 결과, 부채는 주로 주택마련 또는 임대소득을 기대한 건물 구입으로 발생
부채를 포함한 부동산은 공시지가 하락, 공실 발생, 공격적인 임차인 등의 문제를 내포할 경우 안정적인 임대소득 및 매매를 통한 차액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,
향후 베이비부머는 무리한 부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설계 필요

앞으로도 본 센터에서는 인천시 노인세대 및 예비노인세대가
인간다운 삶과 행복한 노후를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
연구조사를 수행하겠습니다.



본 자료는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
홈페이지(https://inlife.or.kr)에서
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
원 보고서: 인천시 노인의 가계구조 분석(양지훈 · 조수현, 2018)



인천여성가족재단

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